

순천만 잡월드 다음달 착공·2020년 개관

연면적 8천㎡ 485억원 투입 청소년·어린이 직업체험 산실로
선 콘텐츠 확정·후 건축 방식 적용...완공 땀 연간 30만명 방문

청소년과 어린이의 직업 체험의 산실이 될 순천만 잡월드가 3월 착공해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 순천만 잡월드가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시작된다.
국비 240억원, 지방비 245억원 등 485억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8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순천만 잡월드는 경기 성남의 한국 잡월드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갔으며 건축 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다.
순천만 잡월드는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해 체험 콘텐츠를 먼저 결정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선 콘텐츠 확정, 후 건축 공사' 방식을 선택했다.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에 따라 건물이 받는 하중은 물론 구조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설계용역을 통해 기획한 순천만 잡월드의 디자인 철학은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턱을 없애는 것은 기본이고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모두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공간을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잡월드를 채우는 콘텐츠도 관심이다.
어린이 체험관은 흥미를 끌기 위해 놀이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놀이기구의 일종인 카트를 타고 직업 체



순천만 잡월드 조감도.

험을 할 수 있고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을 직접 만들고 조종할 수 있다.
청소년체험관은 뉴미디어로 떠오른 유튜브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설이 들어선다.
생태도시 순천을 느낄 수 있도록 가드닝 샵과 자연환경연구소, 야생동물구조센터

로 구성된 에코 캠프도 눈에 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반려동물센터와 헬스케어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순천시는 인근에 있는 순천국가정원과 연계해 수확여행 코스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잡월드가 문을 열면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 지역에서 연간 30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업에 대한 정보나 체험의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문화유산 보전·활용과 투기 방지 등 조례 제정 추진

문화재청에 검토 요청 이어
입법예고 뒤 4월 시의회 상정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지원 대상 및 기준, 투기방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 토지매입과 보수정비 대상 선정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대역사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지원 사업과 젠트

리피케이션 및 투기를 억제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조례안 검토를 요청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추진하고 문화재청의 표준조례안이 완성되면 향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 4038㎡에 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은 2023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인근에 산재한 근대화자산을 활용해 전시, 체험공간 등을 조성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사랑운동' 범시민운동 확산 총력

시, 시민사회단체와 집중 전개

목포시가 '친절·질서·정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목포사랑운동은 목포시가 1000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기본이자 필수인 친절, 깨끗한 시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단체, 음식점 및 숙박업, 택시·버스운송업체, 상인회, 동·자생조직 등과 힘을 모아 집중 전개하고 있는 시민의식 혁신 운동이다.
지난 1일 목포역 광장에서 목포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200여명이 모여 목포사랑운동 사회단체 릴레이운동의 첫 출발을 알리고 권역별 3그룹으로 나누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찾아 친절·질서·정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실천 동참을 호소했다.(사진)
그들은 목포역에 대기 중인 택시기사에게 '친절' 문구가 새겨진 생수와 리플릿을 전달하며 친절하고 정감 있는 말씨

로 손님 맞이하기 등을 안내하고, 2그룹은 차 없는 거리 상가를 방문해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손님 맞이하기 등 친절운동 동참을 홍보했다.
3그룹은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창성장부터 갑자옥 일대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상가를 방문해 불법 주차차 근절 질서운동과 친절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개통,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맛의 도시 선포, 슬로시티 가입 등을 앞둔 목포가 1000만 관광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며 "시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달부터 4월까지를 목포사랑운동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단체별·권역별로 특색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순천대 제 9대 총장 후보자 선거 8명 지원

순천대학교는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8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순천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총장임용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강성호 사학전문 교수, 강운수 수학교육과 교수, 고영진 식물분류학과 교수, 김정민 물리교육과 교수, 박병희 경제학과 교수, 박형달 경제학과 교수, 이금옥 법학전문 교수, 정순관 행정학전문 교수 등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직후 출마 의사를 밝힌 등록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기호 추천을 했다.
추천 결과 기호 1번에는 김정민 교수, 기호 2번 강운수 교수, 기호 3번 정순관 교수, 기호 4번 박병희 교수, 기호 5번 이금옥 교수, 기호 6번 고영진 교수, 기호 7번 강성호 교수, 기호 8번에는 박형달 교수가 선정됐다.
후보들은 15일 간 선거운동을 한다.
12일 오후 2시에 공개토론회가 열리며 오는 18일 70주년기념관에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

낙안 3·1운동기념탑 일대 테마공원으로 만든다

독립선언문 새겨진 조형물 등
추모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
3·1운동 100주년 맞아 새단장

순천시 낙안읍성 앞 '낙안 3·1운동 기념탑'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된다.
순천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1억5000만 원을 들여 '낙안 3·1운동 기념탑'과 주변을 추모와 휴식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기념탑을 새롭게 꾸미고 '독립선언문'이 새겨진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구국의 열이 깃든 독립선언문을 마주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무궁화를 비롯한 나무식재, 표지석 및 안내판 위치 변경 그리고 주변에 한옥 담장을 설치해 추모공간으로서의 격을 높일 예정이다.
낙안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 13일 낙안 장날, 150여 명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보성, 벌교 일대까지 퍼졌다. 도란사와 이팔사 등 구국 결사 단체를 조직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27인의 애국지사가 옥고를 치르는 등 순천이 자랑하는 호국의 역사다.
배현진 낙안 3·1운동 유족회장은 "낙안을



순천시 낙안읍성 앞 '낙안 3·1운동 기념탑'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된다. 점선 원안은 다시 꾸며지는 3·1운동 기념탑 조감도. <순천시 제공>

성은 역사적으로 애국 및 항일 운동이 강했던 지역으로 낙안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이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낙안면 일대에서 펼쳐진 3·1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천시가 대대적으로 추

진하는 기념사업의 하나"며 "호국의 역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적 302호인 순천 낙안읍성은 연간 120만 명이 찾는 순천시 대표 관광지로 조선 시대 읍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108세대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으며 부역, 토방, 뒷마루 등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용,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